

# ‘나홀간의 감동’... 전국장애인동계체전 폐막

전남 1만2995점...역대최다득점  
 지난해 보다 2계단 오른 종합 4위  
 컬링·아이스하키 등 단체서 선전  
 광주 금1·동 3개 총 2665득점  
 지난 대회와 같은 종합 16위 유지

13일 막을 내린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과 광주가 각각 종합 순위 4위와 16위를 기록했다.

장애인들의 겨울철 체육축제인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나홀간의 열전끝에 폐막했다.

강원도 평창, 강릉, 횡성, 춘천 등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선수부 및 동호인부 총 7개 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에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7개 시·도 1025명(선수 475명, 임원 및 관계자 55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서울이 금 23·은 19·동 6개로 총 3만 743.20점을 획득해 종합 우승의 영예를 누렸다. 2위는 경기(2만3481.20점), 3위는 강원(1만8876.60점)이 차지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지난 2022년 6위에서 2계단 오른 종합순위 4위를 기록했다.

빙상, 컬링,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슬레지하키 등 6개 종목에 70명(선수 36·임원 및 보호자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남 휠체어 4인조 컬링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전남은 금 1·은 5·동메달 3개로 총 1만2995.80점을 획득, 역대 최다득점을 달성했다.

전남은 동계훈련장이 없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킨 단체종목들이 선전했다.

이번 대회 처녀 출전한 전남 청각 여자 컬링팀은 5위로 1456점을 획득했다. 방민자·정승원으로 구성된 혼성 휠체어컬링 2인조가 동메달을 따내며 3060점을 얻었다. 방민자·정승원·민병석·정영기·노병일이 호흡을 맞춘 휠체어 4인조 컬링팀은 지난해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 4440점을 획득했다. 아이스하키팀은 5위로 1675점을 따내며 전남의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탤다.

설상 종목과 빙상 종목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최재형(지적장애)이 13일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프리 IDD(동호인부)에서 15분51초2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재형은 전날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클래식 IDD(동호인부)에선 12분06초60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영순(지적장애)도 여자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프리리 IDD(동호인부)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유승협(지적장애)은 빙상 남자 500m IDD(성인 동호인부)와 빙상 남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에서 은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박정철(청각장애)은 빙상 남자 500m DB(동호인부)와 빙상 남자 1000m DB(동호인부)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다.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빙상 여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에서 금빛 질주하고 있는 광주 김진영(왼쪽).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제공

김은래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선전해준 선수단에게 감사하다”며 “장비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후화 장비 지원을 모색하고 연중 동계 종목의 상시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빙상, 컬링,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30명(선수 13·지도자 등 17명)이 선수단이 참가해 금 1개와 동 3개를 획득, 지난해와 동일한 종합 16위(2665점)로 대회를 마쳤다.

광주는 전년도 점수(1214점) 대비 1000점 이상 향상된 성적을 거둬 폐막식에서 열정상을 수상했다.

광주는 빙상과 설상 종목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김진영(지적장애)이 빙상 여

자 1000m IDD(성인 동호인부)에서 1분 59초4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좌환(지적장애)은 빙상 남자 500m와 1000m IDD(성인 동호인부)에서 동메달 2개(빙상 남자 500m·1000m IDD)를 획득했다.

김세정(지체장애)은 여자 바이애슬론 중거리 7.5km 좌식경기(선수부)에서 동메달을 땀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광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 지리적 한계로 동계종목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선수단이 작년 동계체전 대비 1000점 이상 상승시켰다. 선수단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최동한 기자 cstone@jnilbo.com

## 전남도청 유단우·최세빈, 펜싱월드컵서 선전

유단우 에베 단체전 우승  
 최세빈 사브르 단체전銅

전남도청 펜싱팀 유단우(에베)와 최세빈(사브르)이 바르셀로나 드컵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의 선전을 이끌었다.

유단우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여자 에베 단체전 결승에 강영미(광주 서구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해인(강원도청)과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에베 대표팀은 32강전에서 세르비아를 45-25로 대파하며 궤조의 출발을 했다. 16강전 이스라엘(45-42 승), 8강전 헝가리(36-33 승), 준결승 에스토니아(45-44)를 연파하고 결승에 오른 여자 에베 대표팀은 세계랭킹2위 이탈리아마저 34-27로 꺾어 시즌 첫 월드컵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최세빈은 같은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월드컵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윤지수, 전하영(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중구청)과 호흡을 맞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16강전 우크라이나(45-43 승), 8강 미국(45-42 승)을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불가리아에 39-45로 져 3·4위전을 치렀다.

여자 사브르 대표팀은 3·4위전에서 헝가리를 만나 45-41로 승리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최세빈은 지난해 알제리 월드컵에 이어 국제대회에서 2년 연속 입상했다.

김용울 대표팀 총감독(전남도청 감독)은 “시즌 첫 국제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오는 9월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활약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최동한 기자

##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에 김현성씨 임명

제28차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총회

김현성(54) 전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신입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제28차 이사회 및 202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입 사무처장에 김현성씨를 임명했다.

김 신입 사무처장은 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FC 시민축구단 이사, 광주 서구청체육회 상임이사,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체육전문가다. 또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 광산구지적장애인협회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해 장애인체육 행정 경험도 갖췄다는 평가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행정 경험을 갖춘 김 사무처장 임명으로 광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사진들이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제28차 이사회를 갖고 각종 국내외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 제공

주시장애인체육회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회계·경기 감사 결과 보고와 2022년 사업결과 및 결산(안), 2023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에 대한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일상 속 내일이 빛나는 장애인체육’,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체육’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차지

구실업팀 창단 △반다비체육센터 및 종목 특화형 훈련센터 건립 △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전문체육지도자 추가 배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실업팀 창단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후원금 조성 △중목별 훈련장 확보 △우수선수 및 체육인재육성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동한 기자



‘김민재 1도움’ 나폴리 승리 기여 나폴리의 김민재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22라운드 크레모네세와의 경기에서 공중볼 다툼을 하고 있다. 김민재는 후반 20분 빅터 오시멘의 득점을 도와 첫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0 승리에 이바지했다. AP/뉴시스